

01 교회소식

모든 섭리를 아름답게 이루실 하나님

만민중앙교회가 개척 40주년을 맞이까지 크신 섭리 가운데 섬세히 인도하신 사랑의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

02 생명의 말씀

‘선’ 시리즈

엘리아 선지자는 본래 심히 겸비했으며 누구와도 부딪치지 않았기에, 하나님과 교통의 끈을 놓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었다.

03 기획특집

주님을 사랑하는 해외 농아 성도들

동남아시아 말레이시아의 말라카, 셀랑고, 이포 농아 만민교회와 북유럽 리트비아 농아 만민교회의 창립 기념 행사와 수련회 소식

04 간증

죽음 앞에서 영생을~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 시도와 자해 등 죽음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숨이 멎을 것만 같던 호흡 곤란을 치료받은 국내의 성도들의 간증.

만민뉴스

제973호 2022년 7월 24일(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어찌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교회 개척 40주년,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2022년 7월 24일, 교회 개척 40주년 기념 예배가 있다. 주일 대예배는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만민의 역사’(민 23:19)라는 영상설교가 있으며, 저녁 예배는 당회장 직무 대행 이수진 목사가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창대하리라’(히 11:1~3 ; 욥 8:7)는 말씀을 전한다.

1982년 7월 25일, 열 평 남짓한 성전에서 교회 개척 예배를 드리고 13명의 성도로 시작한 우리 교회는 초대교회 같은 표적과 기사, 놀라운 권능의 역사로 만 5년이 채 안 돼 등록 교인 3천 명을 넘는 부흥을 이루었다. 날마다 성전에 모여 기도하며 구제에 힘쓰는 교회가 되었고, 1980~90년대에는 민족 복음화와 각종 교계 연합행사에서 일익을 감당함으로 개신교 부흥에 한몫을 담당했다.

하나님의 크신 섭리 가운데 성결교단의 사중 복음에 기독교 진수인 ‘부활’을 더해 오중 복음으로 예수교연합 성결회 총회가 형성되었고, 이후 1993년에는 미국 ‘크리스천 월드’지에서 발표한 세계 50대 교회에 선정되었다.

1992년 ‘세계 성령화 대성회’를 시작으로, ‘93 워싱턴 복음화 연합대성회’, ‘94 아프리카 목회자 및 교회 지도자 세미나’, ‘94 서울 성령화 대성회’, ‘95 LA 세계 선교 대회’, ‘광복 50주년 기념 평화 통일 희년 대회’, ‘96 하와이 한인 교회 연합성회 및 교역자 세미나’, ‘96 아르헨티나 한인 축복 대성회 및 현지인 목회자 세미나’ 등 교계 행사를 통해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에 힘썼다.

2000년대에는 ‘우간다 연합대성회’를 시작으로 당회장 이재록 목사가 일본, 파키스탄, 케냐, 필리핀, 온두라스, 인도, 러시아, 독일, 페루, 콩고민주공화국, 미국, 이스라엘, 에스토니아에서 개최된 해외 연합대성회를 인도하며 따르는 표적과 폭발적인 권능으로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땅끝까지 전파하였다. 이를 통해 무수한 영혼이 치료받고 개종하며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났다.



교회 개척 25주년을 맞아 2007년 7월 25일부터는 복음이 시작된 이스라엘 전역을 순회하며 성결의 오중 복음을 권능의 역사와 더불어 전했다. 2009년 9월에 이스라엘의 심장부인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연합대성회’를 인도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주 되심을 담대히 선포함으로 이스라엘 개신교 부흥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특히 당회장 이재록 목사에게 기도 받은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으로 기도할 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국내외 곳곳에서 불치·난치병들이 치료되는 성경 상의 희한한 권능의 역사가 무수히 나타나고 있어 화제다.

이와 더불어 170여 개국을 커버하는 GCN방송(www.



gcntv.org)과 61개 언어로 번역 발간된 신앙 서적(www.urimbooks.com), 각종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전 세계에 하나님 사랑과 권능을 외치며 영혼 구원에 힘쓰고 있다.

개척 40주년을 맞아 멈추지 않는 권능으로 함께하시며, 장차 대성전 건축 등 마지막 때의 섭리를 창대히 이루실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

엘리아의 선(善)_1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홀연히 불 수레와 불 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아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열왕기하 2:11)

엘리아는 B.C. 9세기경 우상숭배가 만연한 북이스라엘 아합왕 때 담대히 하나님의 뜻을 선포한 선지자입니다. 그는 이방신을 섬기는 850인과 대결해 믿음으로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렸고, 간절한 기도로서 3년 반 동안 가물었던 이스라엘 땅에 큰비를 내리게 했습니다.

이 외에도 사르밧 과부로부터 떡 한 조각을 공짜 받고 가뭄이 끝날 때까지 양식이 끊이지 않는 축복을 주었으며, 죽은 아이를 살리기도 했습니다. 요단강을 가르기도 하고 앞일에 대해 밝히 예언하기도 했지요.

마침내 엘리아 선지자는 죽음을 보지 않은 채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했습니다. 여기서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다’는 것은 영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죄의 삯은 사망”(롬 6:23)이라 말씀한 대로 사망 곧 죽음이 라는 것은 죄의 대가로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뜻이지요.

이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할 만큼 엘리아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온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경작 받은 피조물로서는 최고의 서열에 오를 수 있었지요. 그렇다면 엘리아 선지자는 어떠한 선의 마음을 가졌기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권능으로 함께하시며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을까요?

1. 겸비한 마음과 누구와도 부딪치지 않는 마음

엘리아는 원래 매우 유약한 성품이었습니다. 자신은 부족하고 내세울 것이 없다고 생각해 자신감이 없는 모습이었지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를 주장하거나 자기 의견을 관철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와도 부딪치지 않았기에 엘리아가 있는 곳에는 화평이 깨지는 일이 없었습니다. 이 모습이 육으로는 우유부단해 보일 수 있으나 영으로 변화된다면 큰 선지자로 발돋움할 수 있는 마음이었지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엘리아의 이러한 마음의 선을 인정하여 택하시고 연단을 통해 큰 선지자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와 이방인 선교에 앞장선 사도 바울은 육적으로 매우 담대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었지요. 그래도 영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이기

까지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기 위해서는 연단의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아는 연단을 통해 마음이 낮아진 것이 아니라 본래 성품이 심히도 유약하고 자존심이나 들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도 ‘나는 부족한데 어찌 하나님 일을 이룰 수 있을까? 하나님 일을 어그러뜨리면 안 되는데...’ 하는 두려움이 있었지요. 그만큼 자신감이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를 온전히 비우고 겸비한 것은 좋으나, 한 시대의 큰 선지자로 쓰이려면 그 유약함이 영으로 변화되어야 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엘리아에게 연단을 허락하셨습니다.

엘리아가 활동했던 시대는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라 할 수 있는 아합이 통치하고 있었지요. 아합왕의 아버지 오므리는 군사적, 상업적 동맹을 유지하고자 아합을 이방 나라 시돈 왕의 딸 이세벨과 정략결혼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가져온 바알 신이 북이스라엘에 퍼져 온 나라가 우상숭배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하나님의 진노가 크게 임하지요. 바로 이스라엘에 수년 동안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아합왕에게 전달하라고 엘리아에게 첫 번째 사명을 주십니다(왕상 17장). 그리고 엘리아에게 왕을 피해 숨을 곳을 지정해 주시지요. 아합왕이 그 말을 듣고 회개하기는커녕 엘리아를 잡아서 죽이려 할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엘리아는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그릿 시냇가에 가서 머물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통해 엘리아에게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공급해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뭄은 시작되었지요.

가뭄이 시작된 지 3년 반쯤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아에게 비를 내릴 것이니 이번에는 아합왕을 만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임한 가뭄이 엘리아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아합왕에게 붙잡히면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마음이 유약한 엘리아에게는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합왕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뜻을 분명히 전달하였습니다. 나아가 불의

응답을 끌어내리는 대결을 위해 바알 선지자 450인과 아세라 선지자 400인을 갈멜산으로 모아 달라고 아합왕에게 제안하기까지 했습니다(왕상 18:19).

2.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의 끈을 놓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는 마음

엘리아가 자신의 유약함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항상 하나님과 교통하는 끈을 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늘 교통하기를 힘썼고,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깨달으려고 했지요. 또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겸비한 마음으로 늘 하나님 앞에 구할 수밖에 없었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 능력을 받기 위해 하나님과 교통하기를 힘썼습니다.

이를 통해 엘리아는 자신의 유약함을 극복하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함과 능력으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엘리아는 이런 체험을 통해 ‘사람의 생각으로 바라볼 때는 되지 않는 일이라 해도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면 능히 된다’는 믿음이 확고해졌지요.

그렇다고 단번에 유약함이 벗어진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연단을 받으면서도 하나님과 교통하는 끈을 놓지 않고 붙잡으니 승리할 수 있었고, 결국은 하나님 능력으로 강함이 임해진 것입니다.

연단을 받은 후 엘리아는 “내가 이같이 부족한 자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되 여호와 하나님의 힘으로는 능히 할 수 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로는 믿음 안에서 어떤 일도 이룰 수 있다는 목표를 가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낼 수 있었지요.

엘리아가 큰 권능을 나타낼 수 있었던 것도 육의 한계 속에 있는 자신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으로 하나님 뜻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오직 믿음으로 순종한 엘리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영의 공간에서만 가능한 일들을 육의 공간에서도 나타내실 수 있었지요(왕상 18:46).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택해 쓰시고자 하실 때, 굳이 육적으로 능력이 많은 사람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만민중앙성결교회
대표전화 02) 818-7000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교회(요식업) 예배	11:00 PM
금요철야예배	11:00 PM
수요예배	7:00 PM
화요찬양예배 [청년·가나안]	8:30 PM
수요찬양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4:00 PM

다니엘철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이재록 목사의 성경 인물 시리즈

URIM BOOKS

교보문고, 영풍문고, 북스리브로, 예스24, 인터파크 등에서 판매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분의 능력을 받아 나타낼 사람을 쓰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 안에 '자기'가 많이 담겨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담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설령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 주신다고 해도 마음 그릇 안에 담긴 '자기'와 섞여서 순수한 하나님 능력이 발휘되지 못하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릇은 먼저 '자기'가 온전히 비워진 깨끗한 그릇, 마음이 겸비한 그릇입니다. 또한 자기가 온전히 비워진 깨끗한 그릇이라 해도 바닥이 깊은 그릇이 많이 담기듯 자신의 마음을 겸비하게 낮추면 낮출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더 많이 임하게 됩니다.

엘리아는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갖추고 있었습니다. 자

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족한 사람임을 중심에서 고백했고, 하나님과 교통의 끈을 놓지 않았지요. 또한 성령이 마음에 임하지 않은 구약시대라 해도 자기를 주장하지 않음으로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은 주님을 믿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받았는데, 혹여 서로 부딪치고 불편해하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의 보혈로 용서하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 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밝히 분별하되 주님을 본받아 상대를 사랑으로 감싸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죄는 미워하되 죄인

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신 것처럼 설령 나 보기에 의롭지 못한 상대라 할지라도 섬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기를 비우고 스스로 겸비하게 낮추는 마음 자세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된 선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를 택하여 보배를 담은 그릇이 되게 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겸비하게 자신을 낮춤으로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는 금 그릇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획특집

해외 농아 만민교회 창립 행사와 라트비아 농아 만민교회 수련회

지난 6월 12, 19, 26일 주일에 동남아시아 말레이시아의 말라카, 셀랑고, 이포 농아 만민교회에서 각각 창립 행사가 있었다. 북유럽 라트비아 농아 만민교회는 6월 23~25일까지 수련회를 했고, 26일 주일에는 창립 행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해외 농아 만민교회는 3개국에 12개의 지교회가 있으며(말레이시아 6개, 태국 5개, 라트비아 1개), 10개국에 12개의 가정교회

(중국 3개, 덴마크, 페로제도,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루마니아, 미국, 우루과이, 가나)도 포함되어 있어 참으로 다양하다.

화상(네프시스 다중 화상 사이트)을 통해 매주 우리 교회 주일 예배와 금요철야예배, 다니엘 철야 기도회에 함께하고 있으며, 많은 성도가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기도를 받거나 이 목사가 기도해 준 손수건(행 19:11~12)으로 기도 받은 뒤 귀가 열리고 소리를 듣게 되는 등 놀라운 권능을 체험하였다.



말라카 농아 만민교회 창립 12주년



해외 농아 만민교회 창립 행사



셀랑고 농아 만민교회 창립 9주년



이포 농아 만민교회 창립 6주년



라트비아 농아 만민교회 창립 5주년



라트비아 농아 만민교회 수련회



“우울증을 치료받으니 천국이 따로 없습니다”

안주리 집사 (55세, 3대대 21교구)



2019년부터 신앙생활이 느슨해지면서 제게 주어진 모든 사명을 내려놓고 직장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으니 점차 세상 사람과 다름없이 살아가면서, 가끔 ‘나는 왜 징계가 안 오지? 사생자인가?’ 하는 생각이 스치곤 하였습니다.

2021년 7월 어느 날, 갑자기 육신의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더니 거식증 환자처럼 하루에 밥 한 공기를 제대로 먹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

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 구원받을 수 없다.’는 생각까지 들면서 너무나 두렵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이후로 제 상태는 점점 더 심각해졌습니다.

정신적인 고통으로 머리를 벽에 찰으며 짐승처럼 울부짖는가 하면, 아파트 11층에서 뛰어내리려 하기도 하고, 차도에 달려들거나 목을 매는 등 끊임없이 자살을 시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때마다 자살은 실패로 끝나 저는 연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지옥 같은 삶은 더해만 갔습니다. 몸도 아위어 체중은 34kg에 불과했고, 뼈에 가죽만 남아 참으로 보기 끔찍한 모습이었습니다. 분명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면서도 사는 것 자체가 이미 지옥이었기에 죽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급기야 정신병원에 입원을 문의할 정도로 제 상태는 매우 심각했습니다. 어찌하든 하나님을 붙잡고자 몸부림쳤지만 제 의지대로 되지를 않았습니다. GCN방송을 통해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조차 알아있지를 못하고 안절부절못하며 왔다 갔다 하는 등 그 시간을 겨우 버텼지요.

이런 저를 위해 대대교구장님께서서는 간절하게 기도해 주셨고, 지역 식구들도 기도로 도와주었습니다. 특별히 여선교회 기관에서는 끊임없이 진한 사랑의 기도를 해 주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2022년 5월 8일 주일 저녁 예배 때였습니다. 당회장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님의 율기 강해 설교를 듣는데, 마음에서 불안과 두려움이 물러가고 행복이 살포시 임하는 것입니다. 다음 날, 만민기도원 이복남 원장님께서 인도하시는 환자 랜선 기도회에 참석한 후에는 정신이 맑아지고 마음이 평안해졌지요. 이내 제 마음은 천국 새 예루살렘 소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곧바로 복용하던 우울증 약을 끊었고, 이후로 일상생활에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이제는 식사도 잘해서 47kg의 체중이 되었고, 행복으로 기슴 벅찬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던 저를 살려 주시고 감당할 수 없는 사랑으로 이끌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과 저를 구원해 주신 주님, 제 마음을 꼭 붙들어 주신 성령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숨이 멎을 것만 같았던 호흡 곤란이 깨끗이 치료되었어요”

달시 고메스 성도 (56세, 베네수엘라 바나메리카노 만민교회)

2005년경부터 시작된 호흡 곤란이 처음에는 1년에 두세 차례 정도로 경미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그 증세가 차츰 심해졌지요.

물을 마시거나 부엌에서 요리하다가도 그 연기에 호흡 곤란이 왔고, 길을 걸을 때도 이런 증상이 나타나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괜찮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혼자 있는 것이 두려웠고, 나중에는 잠을 자다가도 호흡 곤란이 왔지요.

2008년, 저는 엔라세 방송을 통해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설교에 큰 은혜를 받은 남편을 따라 당회장님의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2013년에는 콜롬비아 만민교회를 알게 되어 학업으로 콜롬비아에 거주하는 딸 벤징과 아들 다니엘은 그곳에 다녔지요. 저희도 교회 행사가 있을 때 참석하곤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했지요.

호흡 곤란이 올 때마다 저는 당회장님의 환자 기도(녹음 파일)를 받으며 그 위기를 넘기곤 했습니다. 가족들은 이런 저를 많이 걱정했고, 특히 딸 벤징은 “엄마, 제가 베네수엘라에 가면 권능의 손수건으로 같이 기도해 줄게요.”라고 했습니다.

당시 저는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콜롬비아 만민교회 장정연 목사님의 권능의 손수건 기도를 받고 다리 통증과 병들을 치료 받은 체험이 있음에도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생소하게 느끼며 의문을 품었지요.

2018년 6월, 콜롬비아에 있는 자녀들이 오랜만에 집에 와서 저는 그날 밤 행복하게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호흡 곤란이 온 것입니다. 잠에서 깨어나 몸을 일으켰지만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아, 이렇게 죽는구나.’라고 생각하였지요. 가족들은 놀라 깨어났습니다.

딸 벤징이 당회장님께 기도 받은 권능의 손수건을 가져와 제게 얹고 기도했는데 그 순간 숨이 쉬어지는 것입니다. 이후 숨이 고르며 안정을 되찾았고, 저와 가족은 주님께 감사하였습니다. 저는 딸에게 손수건을 빌려달라고 부탁해 그날 밤 손수건을 품에 안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날이 호흡 곤란을 겪은 마지막 밤이었지요. 이 일 후에 제 신앙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을 체험하며 영적인 믿음이 주어지니 이제는 불같이 기도하며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성결의 마음을 이루고자 노력하고 있지요.

놀라운 권능의 역사로 무수한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 딸 벤징과 함께



▲ 사도행전 19장 11~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가 나갔다고 기록되어 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당회장 이재록 목사에게 기도 받은 권능의 손수건을 통해 크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심으로 성경이 참임과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확증하고 계신다.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변영1로 34 ☎041)881-7000, 010-3030-7025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
- 김해만민성결교회 경남 김해시 삼정동 43-15 메디피아 4층 ☎010-6218-0703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054)281-2468, 010-9773-7017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마산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광천서로 57 광림빌딩 7층 ☎010-8741-2073

- 목포만민교회 전남 목포시 상동 비파로 135-1 2층 ☎010-6507-753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지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51)805-3898, 010-9140-4194
- 사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엄사면 향환리 374 ☎042)841-0091, 010-7195-1099
- 세산만민성결교회 충남 서산시 무학로 1895 ☎010-6306-9798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만리공원길 7-1 3층(교동) ☎033)637-0271, 010-7733-1327
- 순천만민성결교회 전남 순천시 장평길 13 2층 ☎010-6803-7266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권곡동 552-26(청운로 129) ☎041)546-1537, 010-2672-0244
- 여수만민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3길 11-2 ☎061)652-8311, 010-2325-1228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063)853-0675, 010-3637-0263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절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진주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길 17, 2동 3호 ☎055)852-5815, 010-4849-1479
- 천안만민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가락길 71 ☎043)293-7077, 010-8291-7173
- 춘천만민성결교회 강원도 춘천시 옥산포길 17-7 ☎010-2090-7710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용산동 1210 ☎043)845-0617, 010-2447-9217
- 강릉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호유빌딩 지하 ☎02)489-3766, 010-2201-0542
- 경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완정로 162 ☎010-5611-725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2290-1856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010-5611-7254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7736-9333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아람로 95 ☎010-2201-0542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문로 150번길 26 2, 3층 ☎031)202-8480, 010-4820-1700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산2로 22, 은성빌딩 3층 ☎031)485-9143, 010-7773-0357
- 영종도지성전 인천광역시 중구 은하수로 351 832동 402호 ☎010-5611-7254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4710-9649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아십대천로 1177번길 12 ☎031)635-9103, 010-2201-0542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120 백세빌딩 10층 ☎032)863-9857, 010-5611-7254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B/D ☎031)905-2419, 010-4710-9649